

2011년 12월

## 샤미나드처럼,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마리아와 함께 하는 예언자들

복자 윌리암 샤미나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성 바오로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예언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동의하기를 바라며, 이번 달 주제의 이 핵심에서 등대처럼 빛이 납니다: “샤미나드처럼,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마리아와 함께 하는 예언자.”

### 예언자적인 “비전”은 신앙에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의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 샤미나드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sup>1</sup> 또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신은 다름아닌 성령입니다.”(263). 얼핏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히브 11:1)은 “보이지 않는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들은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과 희망으로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제야 한 가지 진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샤미나드가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비현실적인 것은 방해가 됩니다: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자연적, 초자연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533) - 왜냐하면 *Vita Consecrata* no. 84 에 쓰여진 대로 “**진실된 예언은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 이기 때문입니다. 샤미나드는 덧붙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164). 예언자들도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



### 예언자다운 행동(태도)

예언자들은 그들을 부르는 것을 그만둔 적이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것과 새로운 초대들/ 동기들에 그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하느님께 열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전쟁들을 선택하셨다**”, 샤미나드는 거듭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전투적인 행동 방법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sup>1</sup> 참고문헌: 샤미나드 신부의 믿음에 관한 저술.

예언자들은 그들 자신을 과거와 일상에 의해 또는 수줍음에 둘러싸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항상 놀라움의 길들을 따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앞장 서시는 “움직임의 하느님”인 그분 자신의 이미지 안에서 떠남의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샤미나드는 과감하게 그의 시대 안으로 들어갔으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의 영성적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 다지기, 주목할만한 방법으로, 평신도에게, 프랑스 혁명의 긍정적인 요인의 징용 그리고 예상하는 가톨릭 활동들인 사도적인 방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의 수도자들은 사제이든지 또는 평수사이든지 그들 사이에 평등합니다. 그들은 “..님(귀하: 존칭 예: 선생님)”으로 불러집니다. 그리고 수도복을 입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선생님과 하느님을 따르기를 희망한다면, 세상의 진의를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며(더욱이 이것이 디아스포라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장벽들 밖으로 가는 것과 같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인류의 완전한 혼합 안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또한 그들의 것보다 다른 문화들 안에서와 생각의 다른 방법들 안에서 성령은 움직입니다. “진실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신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현대 세계의 사목현장 GS 1.1].” 그리고 “(이) 세계는 창조주의 사랑으로 조성되었고 보존되는 것[현대 세계의 사목현장 GS 2.2]”이라고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알았습니다. 샤미나드는 “우리의 사명은 (으로) 모든 곳에(온 세상에) 믿음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며, (그래서) 크리스찬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182)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시도해 보는 용기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처럼 어떻게 거쳐 안에서 사는 것인지, 항상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시대의 여성과 남성들의 한가운데에, 만약 예언자들의 증거가 오직 권위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언자들은 그들 시대의 여성과 남성들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증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주의와 이론의 모든 의미들이 함께 있는 삶에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샤미나드는 그의 삶을 통하여, 거주지들을 오갔습니다: 뮤시당, 보르도 그리고 혁명시기 동안 이곳들은 불확실한 은신처의 장소들이고, 사라고사와 보르도는 교회(본당)의 안전함이 다시 없었지만 임시의 거주지에서, 성당에서 성당으로, 창립에서 창립으로. 그는 망명자들, 젊은이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요한 2:5)’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리아

의 선교사들입니다.(295) 그것은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로밍(roaming)”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마리아와 함께 하는 예언자들, 첫 번째 현대의 여성



“모든 것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라고 샤미나드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464)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와 함께 “진정한 계약”을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약은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첫 번째 제자들이 계약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의 계약은 활동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길 데 없는 여인이시며”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약속의 여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우리의 희망이며 기쁨이며 교회의 생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는 이런 고귀한 이름을

사용해서만 마리아를 언급하셨음)”(1839년 8월 24일 편지) 간단히 말하면, 샤미나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현대의” 여성이시며, 우리의 시대를 위한 여성이신 마리아와 함께

예언자가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부터 시작하여, 천사에게 질문하고, 도전한 후에, 마리아는 완전한 자율성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람들의 성소에 대한 완전한 충실함 안에서, 어떻게 그녀의 숙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니피캇을 노래하게 하는 “용기를” 내게 했던 곳인 ‘Ain Karim’에 있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의 대답함은 빨리 명백해졌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의 길에 그녀가 서 있기까지의 여행에서 그녀의 용기를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두 번의 경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 안에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속고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 되는 간에 책임 있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능력으로써, 그녀는 그녀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카나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카나에서, 문안했을 때, 그리고 더욱이 초대교회의 첫날이 시작되는 날들이 시작될 때, 마리아는 주의 깊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 그녀는 삶의 시작에 끝까지 움직이고 있는 정의의 여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람들의 사명을 다루는

진정한 시온의 딸로서 수용할 수 있으며 다이나믹한 여인이십니다..... 이 단어들은 마리아의 “현대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자유, 충실한, 독립성, 대담한, 용기 있는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은 숙고하는, 주의 깊고,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활력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따르게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특성들의 순명, 겸손의 정도와 최고의 약속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샤미나드에 따르면, 그녀는 “우리는 매우 특별한 보조자이고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녀에게 협력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의 여인이십니다.

###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예언자들

예언자는 파견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견이 없이는 부르심도 없습니다. 집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행복과 안정성을 포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 되는 것은 그의 시대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며, 사람들 속에 있는 그의 거처로 내던지는 것이며, 모험들 일시적인 것과 실험의 모험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옛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 지시된 것입니다: 세계, 사도의 세계에 의하면, “미래는 기쁨입니다”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림시기 동안 준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샤미나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마리아는 세상에서 우리 형제들의 구세주 안에서 일하는 임무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바오로 2 세가 그의 첫 번째 관심사였던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정의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사랑의 문명”의 대림시기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샤미나드는 그의 제자들의 “무엇보다도 젊은이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준비자세에 대하여 크고 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바-일(Bernard Vial, SM)이 “진정한 교육은 사랑이며, 단지 전문직 또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쓴 것처럼 “교육서원”을 발한 그의 수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소달리티의 평신도 회원들 정의는 활동이 없이는 확립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데레사 드 라무르즈가 함께하는 회개하는

매춘부들 또는 .. 젊은 굴뚝청소부들의 봉사...에 그들 자신들을 함께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샤미나드 신부가 많이 읽고 묵상했던 성인)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의가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제국들이 되면] 무장된 강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아가면, 그 결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성탄절 밤의 완전한 소식인 하느님의 아기의 사랑의 메시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달의 축제:** 8: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MLC 와 FMI의 수호 축일); 1800 년에, 샤미나드는 “원죄 없으신 콩그레가시옹”의 첫 번째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로저 비셀버 (Roger Bichelberger, MLC)*